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 › 활동기관 : 과테말라 경제부
- › 자문분야 : 정보 기술
- › 자문내용 : 데이터 센터 구축 자문
- › 성 명 : 임 종 원



## 낮선 마야의 나라, 과테말라

‘나무의 나라(Country of Trees)’라는 어원을 갖는 중미의 작은 나라, 과테말라는 말 그대로 험준한 산악 지대와 울창한 정글이 자아내는 풍요로운 대자연을 품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직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서로 어울려 그려내는 전원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안식과 감동을 선사한다. 한때 고도로 발달한 마야 문명의 중심지였으나, 300년에 달하는 스페인 식민 지배를 받아야 했고, 독립 국가로서 출발한 현대사에는 독재와 군부 통치라는 오욕의 역사를 품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빛나는 마야 문명이 녹아 있고, 미개척인 분야가 많은 희망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가능성의 나라이다. 비록

- 1) 과테말라시티 전경
- 2) 산호세(San hose) 바닷가
- 3) 카리브 해 연안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정치와 치안으로 해외 여행객에게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석유나 커피 등의 자연 자원 개발과 인적 자원 양성을 통하여 해외 교역 확대와 중소기업(SME) 육성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 전반에 가중되는 빈부 격차화, 계층 갈등, 사회 불안 등의 성장통도 함께 겪고 있다.

내게 과테말라시티는 미지의 세계였다. 전혀 다른 문화와 생활 양식은 당황을 넘어 절망에 가까웠다. 무엇 하나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은 마치 외계인이라도 된 듯 느껴졌다. 현지 적응, 그레 현지 적응이 우선이었다. 그 과정에 파견 기관 직원들과 교민들의 도움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안전한 구역에 아파트를 임대하는 일에서부터 시장 보기, 여행, 출퇴근 등 일상 곳곳에서 그들의 도움과 조언이 있었다.

### 현실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다

경제부 직원들은 데이터 센터 구축과 운영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금 조달과 방식이었다. 오랫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 IT 인프라 개발 계획의 상당한 부분을 외국 투자 자본과 유·무상 대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더욱이 정통부, 경제부의 IT 관련 투자 개발 계획 중 대부분은 중장기 국가 발전 로드맵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이었다.

일단 IT 관련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교육 훈련과 세미나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해외 자문관들과의 국제 공조를 통한 교류 협력 차원의 민간 외교와 더불어 IT 전자 정부에 대한 민간 산업 분야의 부정적인 인식을 설득하는 일도 중요했다. 특히 민간 산업 분야의 관계자들과 경제부 직원들의 협조 덕분에 중장기 국가 IT 어젠다(National IT Agenda)에 데이터 센터와 전자 정부 도입을 반영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대만 등의 컨설팅 인력들과 민간 분야 주요 협력 산하 기관 및 지도자들도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직업교육센터의 IT 교육 현장

IT 교육과 대학생·일반인·공무원 대상 교육은 주로 경제부 청사와 KOICA의 투자로 건설된 직업훈련센터를 이용했고, 간혹 민간 지도자들을 만날 경우에는 외부로 출장을 나갔다. 그 과정 속에 현지 사람과의 친목이 중요했는데, 직원들과 빨리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스포츠와 같은 야외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었다. 나 역시 운동과 취미를 통해 그들과의 벽을 허물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다. 아침마다 반가운 인사를 대시하던 커피 한 잔, 정성이 담긴 도시락, 점심시간의 즐거움을 한층 돋운 작은 파티, 직원들과 어울려 거닐던 근무지 주변 산책로와 전통 시장 등은 지금도 그리워진다.

### 데이터 센터 후보지 실사

정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부지로 몇 곳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특히 과테말라시티 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 부지의 경우 규모는 작지만 정부 소유 토지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빈번한 지진과 예산 부족으로 계획이 미루어지고 있었다. 아울러 안티구아(Antigua), 팻준(Patzun) 등 타 지역의 데이터 센터 유치 활동도 활발했는데, 여러 후보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시행하는 동안 사업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성이 담긴 점심 식사는 감동이었는데, 소박한 지역 전통 음식과 차는 그들

만의 자부심과 절제된 예의를 잘 드러내고 있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 사업은 점진적이고 치밀한 설계가 중요하다.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민관 협력을 통한 정부 설득, 정책 반영 등에 많은 시간과 자본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추진의 핵심 조직과도 원활한 교류 협력이 필요했다. 물론 전자 정부에 대한 관심과 추진력, 자금력 등 극복해야 할 대내외 조건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과테말라 사람들의 낙천적인 소양을 비롯하여 현지 직원들이 보여준 철저한 소명 의식과 끝없는 열정은 머지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 낼 것이라는 믿음이 되었다. 그들 역시 이 사업이야말로 사회를 이롭게 하는 가치 있는 일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라 믿고 있었다.

### 곳곳에 숨은 여행의 즐거움

과테말라시티의 건축물들은 전통과 현대가 한데 어우러져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잔상과 네오 클래식 스타일이 독특한 분위기 연출하는 한편, 전통적인 옛 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유적들도 시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현대적인 도심에 위치한 Miguel Angel Asturias Cultural Center, National Theater 등에서는 뮤지컬, 아트 갤러리,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관람할 수 있다.



안티구아에서 보이는 파카야 화산



- 1) 안티구아시청
- 2) 안티구아 중앙공원
- 3) 아마띠틀란 호수

지방 곳곳에 남아 있는 스페인 식민 시대의 유산은 그 자체로 좋은 관광지가 되었다. 여름이면 안티구아, 쉘라(Xela) 등 대표적인 스페인어 연수 도시들이 외국 학생들로 북적였고, 비야누에바(Villa Nueva), 아마띠틀란(Amatitlan), 티칼(Tikal) 등은 마야 문명 유적지 탐험과 문화 체험으로 관광객의 단골 여행 코스가 되었다. 여러 박물관의 둘러보다 보면 비옥한 자연환경을 대변하는 동식물들과 자연 유산의 다양함에 새삼 놀라게 되는데, 과테말라 국기 중앙에 그려져 있는 앵무새가 이러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과테말라는 고온 다습한 열대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25~30℃이며,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사바나 기후이다. 과테말라시와 같이 해발 1,500m 이상의 고원 지대는 온대 기후로 평균 기온은 12~25℃로 주요한 생활 무대가 되고 있다.

여행 시기는 일 년 언제나 좋지만 특히 10~5월 건기를 권한다. 그렇다고 우기가 나쁘다

는 뜻은 아니다. 우기라고 해도 대부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비에 그쳐 우산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 범죄 증가와 치안 불안으로 여행객은 호텔에서 원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게 좋으며 혼자서 지방 여행을 다니는 것보다는 현지 가이드와 같이 여행하는 게 안전하다.

## 기억에 남을 과테말라의 멋과 맛

제조업 기반의 산업 인프라가 취약한 농업의 나라여서 그런지 시골을 지나가다 보면 험준한 산악 지대를 농지로 개척하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토속 주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과테말라에는 종교적 행사와 축제가 많은데, 인구의 70%가 가톨릭인 만큼 세마나 산타 축제 기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혹은 성당으로 모여들고, 성대한 축제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행사는 성모상을 들고 시내 중심가를 도는 긴 행진인데,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관광객이 몰려든다. 축제는 수일 동안 계속 이어지는데, 크고 작은 지역 행사도 함께 펼쳐져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특히 도처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와 연회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안티구아 길거리 공연

점심시간의 풍경은 북적북적하고 분주한 전통 시장의 상인들의 모습부터 중앙 정부 청사 앞 광장에서 한가롭게 비둘기 모이를 주는 모습까지 다양하다. 지천으로 볼 수 있는 제철 열대 과일과 과테말라 전통 요리는 직원들과의 나들이에서 빠질 수 없는 재미가 되었다. 직원의 소개로 자주 가던 해산물 식당에서는 날 생선이나 날 조개류의 무침 요리인 세비체(Cebiche)와 나초(Nacho)를 즐겼다. 아울러 육즙이 살아 있는 스테이크 전문점과 수입 기관 앞 골목에 지키던 형제들의 길거리 음식은 잊지 못할 맛으로 남아 있다.



전통 시장 풍경

1) 경제부 장관, 담당 국장 2) 직원들과 함께





IT 담당 과장은 자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줄곧 보여 주었고, 지방 여행을 같이 떠날 때에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그의 저녁 초대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가족과 친척들은 모두 친절하고 상냥했다. 또한 넘치는 사랑과 작은 선물에도 감사해 하는 마음씨로 여유롭고 인간적인 행복은 만끽하는 모습을 보며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 나를 찾으려면 여행을 떠나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마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소설 속 마법사 간달프조차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일 것이다. 한번은 우연히 과테말라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미래에 대한 설계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사회에 사는 친구들이 들려준 도전적 미래 설계와 구체적 목표 설정, 계획적 사고 등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치 않았다. 치열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들의 자신감과 당당함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르침이 될 터.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골몰하기보다 소박함에서 기쁨을 찾고 그것을 바로 지금 누리면 사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주재 한국대사, KOICA 직원들과 함께

그런 의미에서 과테말라 사람들이 보여준 소박한 행복과 주변 자연 환경, 이웃과의 조화로운 생활 방식은 척박한 인심과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 수많은 이익 집단의 카르텔, 암울한 미래와 사라진 희망 등 우리 사회를 점령하고 있는 우울함과 달리

정의로운 신념과 봉사, 또 다른 가치로의 탈출구를 발견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약해지고 초라해진 나를 확인할 때, 마음껏 무언가 발산하고 싶을 때, 조급한 마음이 들 때, 불확실한 미래가 고민될 때 과테말라와 같은 미지의 땅을 여행하길 권해 본다. 우리는 종종 잃어버린 나를 찾아 여행을 하고, 나의 가는 길을 묻고, 또 길에서 찾은 가치와 소중한 것들에 대한 소회를 글로 쓰곤 한다. 여행은 이처럼 급변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변하지 않는 주변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과정이다. 니체의 상처 입은 포도나 고희의 불꽃같은 신념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공허하고 불안한 가치를 우리는 여행이 가져다주는 선물로 위로하는 것이다.



과테말라  
임종원

- UNSA대학 RODIGE/ Biz Intelligence & EC/ 박사
- 前 (주)CIES 근무
- WFK NIPA Advisors 과테말라 경제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파견